

GREENPEACE



GREENPEACE

재단법인 그린피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우 04322)

☎ 02-3144-1997 ✉ supporter.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독립적인 비영리 캠페인 단체로, 지구 환경 보호와 평화를 이루고자 창의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직접 행동합니다. 그린피스는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를 폭로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나 기업에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린피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그린피스가 언제나 어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INTER 2015

IMPACT REPORT

더 나은 지구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후원 덕분에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쁜 소식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캠페인 끝에 석유기업 셸이 마침내 북극에서 석유시추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대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파괴하던 탄광개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방문해 함께 캠페인을 펼치고 후원자님들을 만나기도 했지요.

아직도 지구 곳곳은 상처입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원전단지를 보유한 나라로 고리 원전 추가 건설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할 때 챙겨 입는 등산복에도, 자연을 오염시키고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남획되는 참치들과 산채로 지느러미가 잘려 버려지는 상어들의 모습, 수 개월째 꺼지지 않는 산불로 인해 뿌연 연기로 뒤덮인 인도네시아의 현장을 여러분께 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같이 걱정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함께라면 어려운 문제라도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후원자님들과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함께 소중한 지구를 지켜주시는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후원사업국 국장 채정아 드림



cover story

노르웨이 로포텐 섬의 해양과 자연 보호 캠페인을 위해 출항한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
© Greenpeace / Åsl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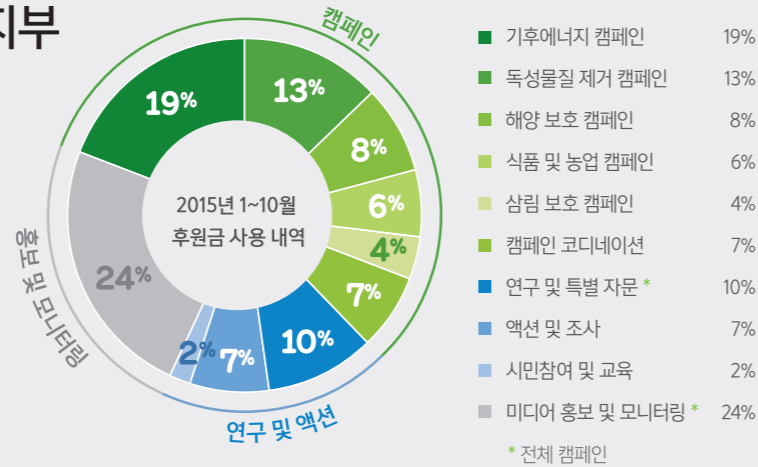
목 차

- 02 인사말
- 04 후원금 사용 내역 및 연말정산 안내
- 05 글로벌 캠페인 하이라이트
- 06 서울사무소 캠페인 하이라이트
- 08 2015 댐거하자 투어 1
- 10 2015 댐거하자 투어 2
- 12 그린피스 사람들
- 14 기후에너지 캠페인
- 16 북극곰 이야기
- 18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 20 해양 보호 캠페인
- 22 글로벌 캠페인
- 24 후원자 행사
- 25 후원자의 편지
- 26 감사 인사
- 27 반갑습니다

임팩트 리포트 2015 겨울호(통권 5호)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 화 02)3144-199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2015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금 사용 내역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안내

그린피스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연말정산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하나 연말정산을 위한 후원자 정보 확인하기

그린피스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를 통해 연말정산을 위한 후원자 정보 사전 확인 * 회원 정보 수정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www.yesone.go.kr)
- 2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후원자 정보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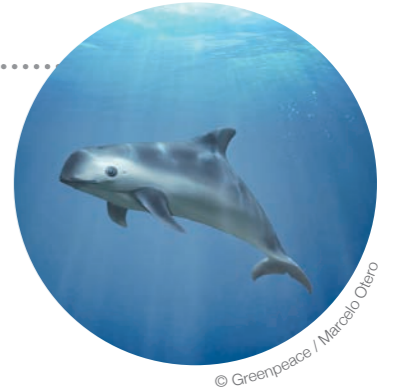


그린피스 글로벌 캠페인 하이라이트

멸종 위기의 바키타를 지키다

전 세계에 100마리도 채 남지 않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돌고래, 바키타. 바키타 자체는 어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역시나 희귀 어종의 하나인 토토아바를 잡기 위한 그물에 함께 희생되면서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토토아바의 부레는 보양식으로 중국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바키타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린피스 홍콩사무소에서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 전 세계 13만 명의 서명과 함께 보호단체들의 청원 편지를 홍콩 정부에 전달했으며, 홍콩 세관은 마침내 해산물 시장을 조사하고 공항에서 중국 본토로 밀수되는 토토아바의 부레를 압수했습니다.



© Greenpeace / Marcelo Otero

멕시코에서 건강한 식탁의 미래를 만나다

2015년, 그린피스는 멕시코에서 건강한 식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에스페란자호는 연구용 샘플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의 대학 및 독립 연구소들을 위해, 합성비료와 농약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쓰일 산초초 샘플을 걸프만과 카리브해에서 채취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카탄 반도에서는 지방정부, 마야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위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행사에 맞춰 에스페란자호를 방문한 유카탄주의 톨란도 사파타 벨로 주지사는 2018년까지 친환경적인 농업을 성장시키고 전통적인 친환경 농법인 밀파(milpa)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국가 전략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Cheryl-Samantha Owen / Greenpeace

브라질 산림벌채 제로(ZERO)를 위한 법안 제출 140만 명 참여

아마존의 산림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축구 경기장 70만 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이 파괴되면서 아마존의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의 산림 벌채가 전 지구적 강우 현상에도 지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그린피스는 브라질의 산림에서 벌어지는 모든 벌채를 중지하라는 법안을 브라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년 간 총 140만 명이 넘는 브라질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 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그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그린피스와 일반 시민들은 물론, 브라질의 유명 인사들도 참석해 브라질의 산림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Adriano Machado / Greenpeace

2015년 서울사무소 캠페인 하이라이트

한 해 동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캠페인 외에도 새로운 캠페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며, 어떤 캠페인들이 진행되었고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돌아봅니다.

세계 최대 원전, NO! 세계 최고 안전, YES!



그린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리 원전에 더 이상의 원전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린피스는 신규 원전 건설을 막기 위해 지난 10월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신고리 3, 4호기 앞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쫘!”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위험을 알리는 브로슈어를 나누어드리는 한편,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은 국민들을 대표해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어 위험한 원전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IT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지난 5월, 그린피스는 국내 IT기업들에게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화석연료와 위험한 원자력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딴거하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 주신 결과, 국내 1위 포털 기업인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데이터센터 운영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커다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딴거하자 캠페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네이버가 약속을 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린 스코어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겨진 것이 발자국뿐일까요?



그린피스는 2015년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은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만들 때 방수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인 PFC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아웃도어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쓰레기 사냥” 이벤트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 곳곳의 청정지역에 탐험단을 보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PFC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 내가 구입한 제품에도 PFC가 사용되었는지 직접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PFC 퀘스트”를 진행해 PFC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한 초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나 자동차의 대기 오염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공공보건대학원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 및 생산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이 얼마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널리 알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한국에서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불법어업국에서 탈출하다

지난 2년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며 원양산업이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2013년 4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폭로했으며, 한국 정부와 한국 원양업계에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후로 그린피스는 정부 및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한국원양수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으며, 두 차례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과정 역시 보안을 위해 지속적인 제안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올해 1월 원양산업발전법이 공포되었으며, 제도 정비의 노력이 인정받아 올해 2월에는 미국이, 4월에는 유럽연합이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용납할 수 없는 위험

10월 29일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서 고리 원전은 세계 최대 원전이 됐습니다. 이미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을 시작할 경우, 고리에는 총 8개의 원전이 밀집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곳에 추가로 2개의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것입니다. 신규 원전 추가로 인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고리 원전 앞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 Lee Kang Hoon / Greenpeace

고리 원전 앞에 선 그린피스 활동가들

2013년 7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주탑 90m 상공에서 25km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평화적인 고공시위는 부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계획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20~30km로 확대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엔 당장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곳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였습니다.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세계 최대 고리 원전

부산과 울산에 위치한 고리 원전은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가 되었습니다. 신고리 4호기 역시 내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 단지인 고리에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한국의 모든 원전 단지는 모두 6개 이상의 원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이 밀집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6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해 운영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전 세계 187개소의 원전 단지 중 70%가 원전 1개 또는 2개를 운영 중이며, 단지 11개소의 원전 단지(6%)만이 6개 이상의 원전을 밀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단지는 모두 이 6%에 속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고리 원전이 안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

특히 고리 원전은 무려 10개의 원전이 밀집되어, 설비 용량이 10,000메가와트(megawatt)를 넘어서는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이, 밀집된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30km 이내에는 16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고리 원전 30km 이내에는 3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인근에는 국가 경제에 핵심이 되는 시설들이 모여있기에, 사고의 피해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의 위험을 원치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및 원전 산업계, 정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가동을 앞둔 신고리 3, 4호기 앞에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현수막에는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쯤!’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쯤!”



© Lee Kang Hoon / Greenpeace

지난 6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고리 원전에서 가장 노후화된 고리 1호기의 영구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위험한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폐쇄 예정인 고리 1호기의 약 5배 용량에 달하는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지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그린피스와 함께 외쳐주세요.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쯤!”

* 온라인 서명 페이지 : <http://greenpeace.org/korea/nonewnuke>

(글)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고수인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픈보트 현장 스케치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첫 번째 방문지는 바로 부산.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인 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입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부산에서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전하고 신규 원전 추가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2015 딴거하자 투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시민들을 초대해 직접 그린피스의 활동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보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그린피스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방문객들은 선원들에게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안내도 받고, 기념촬영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친환경 선박입니다.



페이스 페인팅 부스는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였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마치고, 인천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을 통해, 위험한 원전과 더러운 화석에너지 대신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상징적인 나무 돌고래, 데이브 앞에서 찰칵!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원들이 직접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이곳 저곳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설명 중인 이현숙 캠페이너



방문객 여러분이 가져온 티셔츠와 가방에 손수 그림을 그려 주신 윤호섭 교수님. 레인보우 워리어호에도 직접 돌고래를 그려 주셨습니다.



오픈보트 행사에는 가족 단위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선원들을 소개합니다!



선원들에게도, 방문객들에게도 잊지 못 할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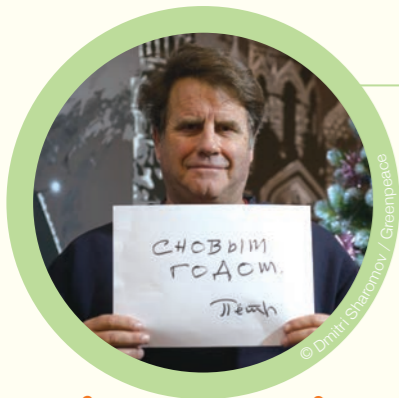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최전방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약해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환경과 지구, 그리고 평화를 위해 배에 오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지금, 레인보우 워리어호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요?

© Kim Hung Ku / Greenpeace

지구와 평화를 위한 용감한 항해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원들을 소개합니다!



• 선장 - 피터 윌콕스 •

“환경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린피스와 함께 해온 피터 윌콕스 선장. 1985년 태평양의 핵실험을 막으려다 벌어진 레인보우 워리어호 폭발 사고 때도, 쉘의 북극 석유시추를 막기 위한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하던 중 악틱 선라이즈(Arctic Sunrise)호에 승선한 30명이 러시아 정부에 체포되었을 때에도, 윌콕스 선장은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한 세월 속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85년 미국의 핵실험으로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남태평양의 마셜 아일랜드 주민 350명의 이주를 도왔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 정부가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이용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끔찍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배에 태워 옮기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산전수전 모두 겪은 윌콕스 선장에게도 러시아 정부에 체포되었을 때와 같은 두려운 순간은 있지만, “그린피스에서 일하다 보면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상황은 종종 온다”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다는 것이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가장 큰 의미라며, 한국도 어서 빨리 재생가능에너지로 향하는 배에 함께 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Dmitri Sharomov / Greenpeace



• 갑판원 - 설칸 •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진정한 평화를 실천합니다”

터키에서 온 갑판원인 설칸은 2001년 두 번째 레인보우 워리어호에서부터 선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배 위에서는 갑판원이지만, 항해를 하지 않는 6개월 동안은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그린피스 선원들은 3개월간 항해를 하고 3개월 간은 휴식을 갖는답니다.)

원래는 대학 전공과 관련된 토목기사로 일하려고 했지만,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그린피스 터키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미래를 생각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에 감동받아 그린피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설칸은 2003년에 진행했던 “NO WAR(전쟁 반대)”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NO WAR 캠페인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캠페인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라크로 무기를 싣고 가던 전함을 가로막았지요. 환경문제는 물론 평화를 지키는 것 역시 그린피스의 역할이기에, 아주 중요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모든 국적과 장벽을 넘어, 지구를 위한 진정한 인간애를 끌어내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설칸. 그의 바람처럼,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가는 곳마다 환경은 물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퍼뜨리길 바랍니다.

© Kim Hung Ku / Greenpeace

“개개인의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 엔지니어 - 사비느 •

호주에서 온 사비느는 10년 동안 작은 상업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해왔지만, 평화적인 직접행동을 통해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반해 그린피스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구명보트 담당 엔지니어인 그녀는, 이번 항해가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하는 첫 번째 항해라 모든 것이 새롭고 감동적이라고 전합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처한 위기를 보며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더 열심히 해달라고 응원해주시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받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나무 돌고래 데이브와 함께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비느.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후원으로 만들어진 특별하고 소중한 배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진 선원들과 캠페이너들이 함께 변화를 만드는 공간이라 더욱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캠페인을 마치고 떠나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변화를 이끌어어나가는 건 한국의 시민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작은 실천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Kim Hung Ku / Greenpeace



딴거하자 캠페인 2탄, 그린 스코어카드를 소개합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11월 12일, 우리가 즐겨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깨끗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린 스코어카드”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그린 스코어카드는 무엇이고, 왜 깨끗한 전력이 중요할까요?

재생가능에너지 챔피언은 누구일까?

그린 스코어카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100여 개가 어떤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 그 데이터센터는 어떤 전력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고 빠르게 이를 이행하고 있는 애플, 페이스북 등이 A를 받은 반면 국내 IT기업들은 여전히 C, D, F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IT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도, 혁신적이거나 스마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초미세먼지를 생산하고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석탄, 사고가 나면 폐하가 되어버리는 위험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기대있는 현실입니다.

광고 속에만 있는 혁신 vs 실천하는 혁신

11월 16일 애플은 싱가포르에 100% 재생가능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애플스토어를 개장하고, 이를 위해 싱가포르 최대 태양광 개발사 및 운영사인 선십그룹과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고 치키웅(Goh Chee Kiong)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 청정 에너지과 대표는 “두 회사의 전략적 동반 관계는 재생가능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싱가포르의 동력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싱가포르가 기업들이 신 전력기술과 전력사업모델을 개발, 시험하며 상업화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청정 에너지 허브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국내 IT기업들은 광고 속에서만 혁신, 미래 융합을 말하고 현실에선 “안된다, 불가능하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입지는 올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이후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세요(Green My Apple)’라는 포스터를 통해 애플에게 요구했고, 애플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미국의 거대 기업 중 60%는 공개적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기업들이 변화를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무엇보다 우리가 밟고 살아야 할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국내 IT 기업들 역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린 스코어카드 보러 가기: www.greenpeace.org/korea/coolit

(금)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 이현숙

© Greenpeace / Ji Jungyeob



변화하는 IT 기업들, 왜 그럴까?

세계적인 설문조사 기관인 넬슨이 2015년 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가 넘는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45%가 넘는 사람들이 회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했는지가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가치, 친환경적인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은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운영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게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약속했습니다. 맥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디자이너 그룹은 ‘내가 사용하는 애플, 친환경이 되어



* 데이터센터란? 각종 정보가 저장된 서버컴퓨터가 수천 대 이상 모인 대형 시설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저장한 사진이나 자료를 비롯해 엄청난 인터넷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북극곰 이야기 (그림) 김정민

평화로운 북극. 엄마와 아기 북극곰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 금방 다녀 올게!
엄마 곰은 먹이를 찾으러 떠납니다.

이상하다... 뭔가 돌아오는 길이 멀어진 것 같아.

엄마 최고!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엄마 북극곰은 점점 먹이를 구하는 일이 힘들어 집니다. 북극곰은 빙하 위에서 기다렸다가 먹이가 나오면 재빨리 사냥을 하는데, 이제는 사냥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찾지 못해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머나먼 여행을 하고
고래고기 찌꺼기를 가지고 다른 곰들과 싸워야 합니다.

아기 곰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아가야!
무엇이 엄마 곰과 아기 곰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엄마!

태양

왜 빙하가 녹는 걸까요?

2004년 1,600마리였던 북극곰들은 2010년 900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북극곰은 주된 먹이인 물개가 숨을 쉬기 위해 얼음 구멍으로 나오는 순간 재빨리 사냥을 하는데,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사냥을 할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북극곰들이 100년 안에 모두 멸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일까요?

반사!

대기층

이산화탄소(CO2)

통과! 대기층을 통과한 태양복사에너지는 지구 표면을 가열합니다.

적외선 대기층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외선은 지구에 남아 온도를 더욱 높여 줍니다.

해수면 상승

퇴적층 상승

아... 녹는다~~

석탄, 석유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빙하를 녹이는 것은 물론,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에 가까운 도시들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태풍과 가뭄 등 거대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벌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북극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북극 개발을 반대하는 '북극을 지켜주세요(Save the Arctic)'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대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딴거하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북극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린피스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엄마 곰과 아기 곰의 소중한 집을 지켜주세요!



© Greenpeace / Christian Åslund

믿을 수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정말 없을까?

그린피스는 지난 5월과 6월에 거쳐, 유해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 (PFC)의 흔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구 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눈 속에서 찾은 화학 발자국: 외딴지역에서 발견한 독성물질 PFC*>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채취한 모든 눈과 물에서 잔류성과 유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 Umut Vedat / Greenpeace

PFC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알래스카 북극곰의 간 조직, 사람의 혈액과 모유에서까지 발견되는 PFC는 아웃도어 의류 및 장비들의 방수, 방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PFC는 어떻게 지구 곳곳으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 1 과불화화합물(PFC)** PFC는 잘 분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유해 화학물질로, 한 번 자연에 배출되면 수백 년 동안 잔류하며 전 지구 상으로 퍼집니다.
- 2 산업** PFC는 다양한 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자연으로 배출됩니다. 의류제품에 사용된 PFC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물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유출됩니다. 이렇게 한 번 배출된 PFC는 전 지구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 3 아웃도어 장비** PFC는 섬유 및 의류 외에도 많은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덴마크 환경부에 따르면, 생산되는 휘발성PFC(RTOHS)의 약 50%(약 5,000톤)가 섬유기반 소비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 4 환경** PFC는 원단의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PFC를 포함하는 제품의 유통과정에서도 자연에 배출됩니다. 배출된 PFC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섭취하는 물과 음식, 심지어는 먼지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내 등산복은 과연 안전할까?

그린피스는 지난 9월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제품에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브랜드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PFC 퀘스트”를 진행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귀사가 판매 중인 제품 중에 PFC가 포함된 것이 있나요?”

피엘라벤, 바우데, 잭올프스킨, 노스페이스, 마무트, 파타고니아, 아크테릭스 등 국내에서 팬 층을 굳혀나가고 있는 브랜드들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문의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스웨덴 브랜드인 피엘라벤(fjallraven)은 “본사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15년부터 모든 원단을 제작할 때 PFC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의를 받은 거의 모든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독성물질인 PFC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일부 과불화화합물류만의 사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대형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 중에 하나는, ‘PFC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아직 험한 기후에서 버틸 만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PFC 퀘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는 현재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정된 제품들을 연구실로 옮겨 직접 PFC 포함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디톡스 아웃도어 캠페인은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브랜드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블랙야크가 테스트 대상 브랜드에 포함되었습니다. 블랙야크는 국내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PFC 포함 여부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영향도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도 지구를 독성물질로 물들이고 있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이 즐겨 입는 아웃도어 브랜드 및 등산복이 환경과 건강을 독성물질로 오염시키는 범인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1월에 발표될 PFC 테스트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 보고서는 [그린피스 홈페이지 자료실 > 출판물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글) 독성물질 제거 캠페이너 하보미



© Paul Hilton / Greenpeace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그린피스의 항해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태평양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던 대만의 선박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원들이 직접 배 위에 올라 살펴본 결과 조업기록 위조는 물론 멸종위기의 상어 지느러미까지 대거 발견했습니다. 통제불능의 어업 실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Paul Hilton / Greenpeace

태평양 위에서 발견한 통제불능의 참치어업 실태



© Paul Hilton / Greenpeace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약 2달 동안 태평양을 항해하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감시해 왔습니다. 어느 날,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레이더에 대만 연승어선인 'Shuen De Ching 888'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 참치협회인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와 수산당국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 선박은 조업허가 선박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선박에 승선하여 내부를 조사하면서 숨겨져 있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항해일지의 조업기록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일지에는 2달 동안 3톤만 어획했다고 축소해서 기록되어 있었으며, 냉동고에서 찾은 75kg의 상어지느러미에 대한 기록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린피스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Shuen De Ching 888'호의 냉동고에서 발견한 상어지느러미의 양은 최소 약 42마리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보였고, 심지어 멸종위기인 홍살귀상어(Scalloped hammerhead)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WCPFC는 상어지느러미가 한 선박에서 보유한 상어 무게의 5%를 넘는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어지느러미 절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잘려진 지느러미는 법망을 피해 따로 보관하거나 때로는 바다 위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곤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지느러미만 남은 경우에는 원래 상어의 종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치 업계는 변화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실수로 WCPFC의 조업허가 명단에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Sheun De Ching 888'호가 2달동안이나 조업을 하고, 심지어 불법인 상어지느러미 절취까지 하고 있었던 것은 통제불능 상태인 태평양 참치어업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린피스의 폭로로 밝혀진 이번 사례는 해당 지역과 참치 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우루 공화국 정부는 자국 수역에서의 전채(원양어선에서 다른 배로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것)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한 대만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불법어업 예비지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동안 대만 정부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만의 모든 수산물에 유럽 수출이 금지됩니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향한 노력

한국 역시 2013년에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 예비국으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원양산업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2015년 2월,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지난 2년간 한국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있었습니다.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법 개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린피스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의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해왔습니다.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이 풀린 현재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을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FMC)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 관련 환경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앞장서는 한국이 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생명의 보고인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감시를 지속하며, 지속가능한 원양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 해양 보호 캠페이너 박태현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석유기업 쉘, 북극을 떠나다

3년 간 7억 달러를 북극 석유시추를 위해 투자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드디어 쉘이 북극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는 북극 석유시추를 반대하는 전 세계 7백만 명의 북극 지킴이들의 승리입니다. 쉘의 시추 장비에 직접 오른 활동가에서부터 쉘의 배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 위에 매달린 활동가들까지, 지난 캠페인들을 돌아봅니다.

태평양에서 쉘을 막아서다

지난 3월, 미국은 쉘의 알래스카 석유시추를 허가하여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쉘은 여름에 석유 탐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우리가 북극 석유시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0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호를 타고 태평양에서 쉘의 시추선인 노블 디스커버러호의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섯 명의 용감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쉘의 시추 장비인 '북극 개척자(Polar Pioneer)'에 올라, 수백만 명의 서명과 함께 "북극을 지켜주세요(Save the Arctic)"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활동가들은 약천후 때문에 내려와야 했지만 6일 동안이나 바다 위에서 버텼고, 이 평화적인 직접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 Marcus Donner / Greenpeace

다윗과 골리앗

북극에서 석유를 찾으려는 쉘의 노력은 각종 사고와 문제들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쉘이 북극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할 경우 석유 유출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75%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6월, 카약 활동가들은 쉘의 시추 장비가 시애틀의 엘리엇 항을 출발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쉘의 북극 시추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인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 Jason White / Greenpeace

다리 위에서 쉘을 저지한 활동가들

한 달 후, 열세 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쉘이 임대한 새빙선인 MSV 페니카호를 저지하기 위해 오리건 주 포틀랜드 항의 세인트 존스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수십 명의 카약 활동가들 역시 물 위에서 배를 가로막았고, 결국 이들 동안 페니카 호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화적인 직접행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 늦기 전에 북극 석유 시추를 중단시킬 마지막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 Steve Dipaola / Greenpeace

결과 맞서는 사람들-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로부터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쉘은 북극 석유시추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투자 대비 충분한 석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쉘의 알래스카 입찰은 결국 화석 연료 추출 역사상 가장 위험하면서도 값비싼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쉘이 북극 석유시추를 포기한 데에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쉘은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지역 단체, 여러 분과 같은 전 세계 시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극을 떠난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향후 몇 년간 북극 석유시추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북극은 아직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이 영구적으로 세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그린피스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참 해주실 거죠?



© Yair Meyuhos / Greenpeace

후원자 행사

후원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해피 그린피스 데이!”

“2015 탄거하자 투어”의 일환으로, 그린피스의 후원자님들을 특별 초대하는 “해피 그린피스 데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은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방문하여 선원들, 그린피스 직원들과 함께 배를 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Greenpeace



© Greenpeace

후원자님들과의 반가운 만남

“해피 그린피스 데이”는 후원자님들은 물론, 그린피스의 직원들과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선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린피스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며,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10월 10일, 인천에서는 10월 24일 이틀간 진행된 해피 그린피스 데이에 후원자님과 친구, 가족 등 총 200여 명이 방문해주셨습니다. 후원자님들은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올라, 일반 방문객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곳들도 함께 돌아보고 그린피스의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린피스의 캠페이너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국내의 환경단체들과는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그린피스는 개인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데, 활동하기에 부족하지 않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후원자님들의 환경과 그린피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은 그 동안 잘 알지 못했던 그린피스의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새롭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용돈을 보태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허재현 학생은 “배에서의 생활이 불편할 텐데도, 환경을 위해 세계를 다니는 선원들이 정말 훌륭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박수신 씨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쉽지 않을 텐데, 신념을 위해 행동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박종희 후원자님은 “바다의 산성화가 심해져 20년 후에는 생태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선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렇게 선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후원금이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먼 항구까지 힘든 걸음 해주시고, 선원들과 캠페이너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린피스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후원자의 편지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강수연 후원자님의 레인보우 워리어호 승선기

우연히 신청했던 그린피스 후원자 이벤트에 당첨되어, “2015 탄거하자 투어”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타고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항해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는 저에게 뜻 깊은 기회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어 3박 4일간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돛을 펴서 최대한 풍력을 이용해 항해를 하는데, 설계덕분인지 풍력으로 항해할 때는 배가 엄청나게 기울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샤워는 50%의 수압으로 3분 안에 끝내세요!”와 같은 문구도 보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아껴 사용하기 위해서겠지요. 15명 정도 되는 선원들은 선장, 항해사, 갑판장, 주방장, 엔지니어 등 각자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 8시간 일을 하는데, 4시간씩 교대로 일하거나 야간 당직근무를 하기도 해요. 제 룸메이트였던 사비느는 엔지니어였는데, 남성에게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거뜰히 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선원들의 일은 남여가 따로 없고 책임을 미루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두 서로의 일을 협조하고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캡틴인 피터는 선원들이 자유롭게 책임을 다하도록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신념과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겠죠?

식당 벽에는 색명검사표 같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핵명’ 검사표인데, 원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위험성을 잘 모르는 현재의 상황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의 참사를 통해 지구환경의 미래에 위험을 느껴왔고, 그린피스가 한국 원전에 대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가 핵을 만나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항해를 함께한 다국적 선원 분들은 스스로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와 환경에 대한 넓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미약한 내 후원금도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변화는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멋진 선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단 제일 좌측 강수연 후원자



마지막 인사
쿠미 나이두

© Greenpeace / Michael Nagle

사진 제일 좌측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국제 본부 사무총장이 6년간의 그린피스의 활동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북극 해의 석유시추 장비에 오르기도 하고,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행동중심적인 리더 쿠미 나이두는 항상 환경문제에 용감히 앞장서 싸워왔습니다. 비록 그는 그린피스를 떠나지만, 변함없이 그린피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로서, 후원자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린피스의 리더로서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영광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료들, 자원봉사자들, 또 그린피스를 응원해주는 전 세계 수만 명의 후원자님들이 저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위기에 처한 지구의 수많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고향,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러시아 기업과 손잡고 850억 달러를 들여 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남아공시민들이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아공에서는 현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를 맞아 남아공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현재 남아공은 단 한 개의 원자력발전소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전이 남아공의 처음이자 마지막 원전이 되길 희망합니다.

분명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저는 그린피스에서 지낸 6년 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공의 에너지 문제와 맞설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44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지원군이 있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을 모아 어려운 환경문제에도 전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의 성패는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린피스를 응원해주시고, 더 깨끗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여러분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항공등학교 학생들, 초미세먼지 캠페인에 도전하다!

지난 9월, 서울 공항공등학교 토론부 "Let us"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직접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캠페인이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 그린피스에 조언을 요청해왔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던 초미세먼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피켓 문구를 만들고 소품인 방독면을 구하는 일 등 어렵기도 했지만 즐거운 과정이었다고 하네요.



지구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 그림유치원 친구들의 선물입니다

지난 12월 4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그림유치원 미래반 친구들은 집에서 버리지 않고 모은 몽당 크레파스를 녹여서 만든 동물모양 크레파스, 빈 병을 모아 수생식물을 넣은 화분, 잡지를 잘라 돌돌 말아 만든 팔찌, 박스에 그림을 그려 만든 편지지 등 재활용품으로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여 얻은 소중한 수익금을 그린피스에 기부해 주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귀여운 응원 메시지도 적어 주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예쁜 미래반 친구들, 고마워요!



2015년,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올 한해도 그린피스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올 한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역시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더 깨끗한 지구, 더 행복한 미래를 그린피스와 함께 만들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